metro

News p02

이석기 "동시다발 전쟁 준비"

Sports p/21

'1억 유로' 호날두 제친 사내

노태우는 추징금 사실상 완납

NEWS p/02

방사능 감시 시민들이 나섰다

NEWS p/03

LOCAL p/12

노태우는 추징금 '완납'

전 사돈 신명수 80억 대납

노태우(81·왼쪽 사진) 전 대통령 전 사돈인 신명수(오른쪽)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대납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전용 계좌에 80억여원을 이체, 미납 추징금 일부를 대납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넘어갔다.

앞서 노씨 동생 재우씨, 신씨는 노씨의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대납하고 대신 노씨는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3자 합의를 추진해왔다. 이날 신씨의 추징금 대납으로 이 합의가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서 신씨는 미납 추징금 중 80억4300만원을, 재우씨는 150억원을 대납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동아원과 관련 업체와 관계자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유리기자

'IT한류'는 왜 안 밀어주나

기자 수첩
장윤희
(경제산업부 기자)

흔히 '한류' 하면 K-팝과 한식을 떠올리지만 IT도 한류 붐의 주역이다.

국내 벤처기업이 만든 애플리케이션 '키오를'은 전체 다운로드의 9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플래시몹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이 앱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에이아트의 스마트 콘텐츠 '픽셀'은 100여 명의 독립 아티스트 작품을 활용한 각종 배경화면을 제공한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배경화면 톱 10'에 꼽히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IT 벤처 선전에 힘입어 우리나라 벤처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이 8.6%, 수출은 20.2% 성장했다.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가 대개 중소기업 또는 젊은 사업가들로부터 나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거대 자본이 투입된 관료적이고 경직된 아이디어가 아닌 벤처 특유의 기발함과 참신성이 세계에서 통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벤처들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벤처 사업가들은 대개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시장 진입에 필요한 마케팅 및 법률·번역 문제에 부딪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자금 확보와 인재 채용도 어렵다.

IT 한류는 시공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K-팝과 한식보다 더 경쟁력 있는 국가 콘텐츠가 될 수 있다. IT 사업가들의 고충과 생각에 귀 기울여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시다발로 전쟁 준비"

이석기 '가장 길었던 하루'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일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왼쪽). 종종 미소를 짓거나 심각한 표정을 보이기도 한 이 의원은 3일 국회 현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동의안 "이석기, 3가지 지침…총공격 명령시 속도전"

국회에 접수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내용이 상당수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3월 초 진보당 혁명조직(RO) 조직원 홍순석씨 등 지역책을 통해 '전쟁 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후 이 의원은 5월 10일 경기도 광주 소재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RO 조직원 130여 명을 집결시켜 제1차 비밀 회합을 개최했다.

당시 이 의원은 연단에서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고, 정전협정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선동했다.

또 이 의원은 수차례 RO 조직원 강연을 열어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제갈으로 강력한 전면적 힘을 통해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인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국가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적대하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 소속 의원 127명에게 친전을 보내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여 작년 부정경선 조작에 이어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으로 비극 끝으로 몰고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은호기자 mjkun@metroseoul.co.kr

李 체포안 국회보고 이르면 오늘중 처리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될 수 있다.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구별 1곳 시범운영

●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을 시범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활동비가 발생하는 미술, 음악 등 예체능 수업은 재능기부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운영한다.

시는 25개 자치구별 1곳씩을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으로 지정했으며 이미 20개 구 어린이집에서는 재능기부자와 연결을 마쳤다. /김유리기자

올해 한강 다리서 102명 자살시도 94% 구조

● 올해 한강 다리에서 102명이 자살을 시도했으며 구조율은 94.1%로 급증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한강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구조율은 2009~2012년까지 50%대에 머물렀으나 올해 7월 말 현재 94.1%로 급증했다. 다리별로는 마포대교(36명), 한강대교(6명), 서강대교(5명) 순으로 자살 시도가 많았다.

北침장 감시 레이더 서북도서 배치 방위사업청은 2일 침투하는 적의 선박이나 후투를 실시간 감시·탐지하는 이동형 해상감시레이더를 서북도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해상감시레이더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구형 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61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했다. 대당 가격은 34억원. /방위사업청 제공

도로명주소 LED 안내판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태양광 LED로 제작한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을 예술의전당과 우면2지구(우면초교 정류장)에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태양광 LED는 주간에 축적한 태양에너지를 야간에 사용하도록 설계돼 하루 약 60만원의 전기 절감 효과가 있다.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동동희망나래단'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 발족한 후 186세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외계층 지원 요청은 동동희망나래단이나 동 주민센터, 구청에 하면 된다. 문의 02)2627-2872

7일 중·고교생 토론캠프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1회 노원청소년 토론캠프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중·고등학생이며 '내가 스마트폰의 주인인가, 스마트폰이 나의 주인인가'를 주제로 원탁 토론을 펼친다.

문의 02)2116-3993

전화번호 몇개나 외우세요

스마트폰 사용자 평균 7.2개 … 20대 가장 적어

스마트폰 사용자는 평균 7.2개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스마트폰 사용자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이 평균 8.3개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으며 30대 7.8개, 20대 7개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스마트폰이 삶을 똑똑(스마트)하게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그렇다'(61.4%)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신속한 정보 검색' 36.2%, '빠른 업무처리 속도' 35.1%, '다양한 소통 창구' 28.9%, '풍성한 엔터테인먼트' 14.2%, '지식량 증가' 9.2% 등을 꼽았다.

삶이 '똑똑해지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중독된 듯 늘 스마트폰을 끼고 있다' 50%, '머리보다 손이 우선한다' 43.6%, '빠른 것에 익숙해져 인내심이 부족해진다' 39.7%, '신상정보 노출이 쉬워졌다' 23.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채팅·문자메시지(58.6%), 뉴스 검색(39.1%), 음악 감상(38.2%), 메일 확인(30.4%) 등에 사용 빈도가 높았다. /정해리기자

가야금 삼매경 2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회 청소년 종합 예술제에 앞서 청소년들이 전당 밖에서 마지막으로 가야금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호 태풍 '도라지' 주말 한반도 상륙 가능성

2일 발생한 제17호 태풍 '도라지'가 북상하면서 6일 이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이날 오전 3시께 대만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태풍 도라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형 태풍으로 시간당 8km 속도로 느리게 북동진하고 있다. 3~5일 쯤은 오키나와와 가고시마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는 6일 이후 제주 먼 바다를 지나면서 간접 영향권에 들면 곳곳에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진로가 유동적이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윤석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설

플레밍 박사 페니실린 발견

1928년 9월 3일, 영국 런던대학에서 유해성 독감을 연구하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는 세균 배양 접시에서 특이한 푸른 곰팡이를 발견했다. 다른 박테리아를 다 죽인 채 혼자 남은 이 푸른곰팡이 페니실린은 20세기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독감, 기관지염, 급성 폐렴 등의 질병 치료에 효과적으로 쓰여 사망자를 크게 줄였다. 플레밍 박사는 페니실린 농축과 정제에 성공한 옥스퍼드대학의 외오리와 체인 두 사람과 함께 1945년 노벨의학상을 받았다. 페니실린의 장점은 다른 약물들과는 달리 백혈구에 전혀 독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발 방사능 공포 확산…식품 등 검사해주고 관련정보 공개

정부 대신 시민이 나섰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모으고 방사능 검출 시험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핵·방사능 관련 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홈페이지 '방사능와치'(nokeknock.net)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방사능 와치에는 정보공개센터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축적한 수입산 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자료부터 국내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핵시설 관련 정보, 핵에너지 관련 정보 등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강언주 간사는 "정부와 공기업, 민간 등이 생산한 핵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 시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기대했다.

먹을거리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직접한다. 환경운동연합·환실련연합 등 7개 단체가 구성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부터 시민들의 의뢰를 받아 식품·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기금 1억5000만원을 모아 마련한 방사능측정장치 '감마 핵종분석기'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설치하고 방사능 성분 검사를 대행한다. 측정비는 10만원으로 비교적 고가지만 신청 접수가 밀려들고 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2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설명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 직장맘 보육 부담은 낮추고 기업 생산성은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최대 5억 지원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최대 22억원까지

직장에 다니며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직장맘'들은 주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 늘 걱정이다. 심지어 일과 가정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문제를 해소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다.

2012년 어린이집 운영의 전력 수준을 평가한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이용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이 기업의 특성,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형태 등에 맞게 운영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에게 시설전환비로 최대 2억원까지 무상 지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끼리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최대 5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밀집 지역인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도 펼친다. 이때 지원 한도는 최대 22억원까지다.

그 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건물 건립, 매입, 임차,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주에게는 7억원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 융자 지원금을 병행해 지급하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구교재비가 5000만원(교재비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부터 운영 전반에 대해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3667-0565~7)로 문의하면 된다.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cac.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현정기자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든 간다

11월부터 고속도로·철도·지하철·시내버스 전국호환

오는 11월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고속도로·철도·지하철·시내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기능의 선불형(충전식)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11월 출시된다고 2일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철도 시·종착역과 공항 등지의 공영 주차장에서도 교통카드로 요금을 내고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차권에도 교통카드가 통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선박과 공공자전거, 택시 등도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일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를 포함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시외·고속버스 단체와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교통카드 전국 호환 사업에 동참하지 않던 서울시도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내가 직접 캤어요" 2일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서 열린 고구마 수확 체험 행사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캐낸 고구마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사고다발' 스쿨존 10곳 통행제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어린이 상해 2건 및 사망 1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10곳을 지정하고 맞춤형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 관리 지역은 종로구 혜화초교, 성북구 숭례초교, 성북구 정덕초교·석관초교, 도봉구 쌍문초교, 노원구 동일초교, 구로구 개봉초교, 매봉초교, 송파구 방산초교, 강서구 강서유치원이 선정됐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해 등·하교 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통행제한구역' 지정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 및 경찰서 관계자들과 현장 단속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과속방지턱·방호 울타리·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노면 표시 재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62건을 개·보수 한다. /송윤리기자

한방병원도 내년부터 정부인증제 도입

내년부터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한방병원에 정부 인증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인증제를 의료 기관 자율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의료기관은 30병상(환자 정원) 이상인 전국 한방병원 203곳이다. 한방병원 인증은 환자 안전 보장, 시술 질 향상, 시술 안전, 감염 관리 등 의료기관으로서 얼마나 잘 안전과 질 관리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심사를 거쳐 주어진다.

인증 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www.koiha.or.kr)으로 하면되고 인증을 받으면 웹사이트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송윤리기자

다산콜 "무엇이든 묻지 마세요"

식당 전화번호 문의 등 행정 무관 민원 응대 않기로

"00동 짜장면 집 전화번호 뭐예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는 앞으로 행정과 상관없는 단순 생활 민원은 응대하지 않는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의 다산콜센터 예산 절감을 위한 업무 축소 계획을 보고받고 공감했다.

다산콜센터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통화량을 줄여 인력 감축을 한다는 방안이다.

시 통계에 따르면 다산콜센터는 하루 평균 약 3만1000통의 전화가 걸려오며 이 중 17%(약 5270통)가 시 행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이다.

이런 전화 통화를 줄이면 상담원 1명당 하루 응대하는 100~110통을 기준으로 인력 50명가량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담사 1명당 연간비를 200만원으로 따지면 한 해 절감되는 예산은 약 1억원 수준이다.

시는 화재 신고 등은 소방서로 이관하고 기초 상식·상점 문의 등에 대한 응대는 거절하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유희리기자

산재보험 부정비리 신고 포상금 1억원으로 증액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와 공단은 브로커, 공인노무사·공단 직원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산재 승인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시스템을 정비한다.

산재 보상 업무 체계를 개편해 최초 요양부터 추가 상병·전원 요양 단계 모든 승인 과정의 심사를 강화하고 부정비리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김현정기자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metro France

파리시민 72% "휴일 외출 대신 인터넷"

프랑스 파리 시민 10개 중 7개은 여가 시간에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파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터넷 서핑(72%)이 휴일 여가 활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TV 시청이 2위, 영화 관람이 3위를 기록했다. 시민들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외출을 자제하게 된다"면서 "주말이나 휴일에 집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metro Russia

가장 기발한 케이크' 만들기 대회 화제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제 디저트 축제의 일환으로 '가장 기발한 케이크'를 뽑는 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거대한 로봇 모양의 케이크와 꽃으로 장식된 형형 계급을 달려오는 신랑 신부를 표현한 4단짜리 웨딩케이크는 관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제과업체 대표 알렉세이 스미르노프는 "대형 웨딩케이크를 만드는 데 꼬박 이틀이 걸렸다"며 "밑에 2단은 모형으로 만들어져 먹을 수 있지만 위의 2단은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륙 감동 먹인 '휠체어 천사'

장애 이겨낸 전 체조스타 상란, 매니저와 결혼 발표…절절한 러브스토리 화제

중국 체조 스타 상란(桑蘭·사진 아래)이 올해 말 매니저 황젠(黃健·위)과 결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반신불수가 됐지만 '휠체어 위의 천사'로 변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대륙을 감동시키고 있다.

1990년대 중국 체조계의 샛별 '도마여제'로 불리며 눈부시게 활약했던 상란. 그는 1998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친선대회에서 연습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사람들은 그가 전신마비로 영원히 병상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란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강인한 의지로 버티며 힘든 재활치료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끝에 그는 불편하게나마 두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이때부터 상란은 휠체어에 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천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1999년 뉴욕 타임스스퀘어 점등식을 시작으로 2000년 제5회 파랄림픽 성화 기수, 중국장애인예술단 명시 등 많은 공익 사업에 참여했다. 베이징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상란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특약 기자로도 활동했다. 그는 '상란 2008'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선수로 못다 이룬 올림픽 출전의 꿈도 이뤘다.

지난 10여 년간 상란은 어떠한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13억 중국인을 감동시켰다. 이런 상란의 곁에는 힘든 여정을 함께해온 '왕자님'이 있다. 바로 그의 매니저 황젠이다. 베이징시 센싱대표를 은퇴하고 전업 매니저가 된 황젠은 우연한 기회로 상란을 만난 뒤 줄곧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전직 체조 스타의 곁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상란은 수많은 소문과 스캔들의 주인공이었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2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의 따가운 시선과 냉소도 두 사람의 사랑을 막지는 못했다. 황젠은 "2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상란이 불편한 팔로 화장을 하는 모습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다"며 "상란의 생각과 말이 곧 내 생각"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정리=조선미 기자

metro Mexico

트위터 영향력 멕시코시티 최강

전 세계에서 트위터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은 어디일까?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서울?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일본의 도쿄? 글로벌 금융의 심장부 뉴욕? 정답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다.

최근 미국 일리노이대학이 경제잡지 포브스가 지난 7년간 집계한 트위터 관련 통계를 분석, 트위터 이용에 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트위터 메시지가 나온 도시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였다. 하루 생산되는 세계 트위터 메시지 중 2.86%가 이곳에서 발송됐다.

멕시코시티도 크게 뒤지지 않았다. 전 세계 트위터 메시지 가운데 1.03%가 멕시코시티에서 생산돼 '인터넷 왕국'대열로 올라섰다.

비록 메시지 총량에서는 밀렸지만 멕시코시티에서 트위터의 위력은 그 이상이다. 멕시코시티에서는 고발적인 성격을 띤 트위터 메시지 하나로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나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가 거론돼 해결된 경우가 많다. 올해 초에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일반 시민의 올린 트위터 한 의 메시지를 근거로 연방 소비자원의 수장을 교체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멕시코시티 시민들은 트위터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치·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YoSoy132'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은 총선 관련 트위터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정치 판세를 뒤흔들었다. 최근에는 자전거 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 보험업자의 주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네티즌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정리=조선미 기자

HNT 하나투어리스트
신랑 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받으세요!
주말
허니문
상담회
찾아 오시는길
종각역
허니문 주말상담은 언제? 어디서?
일시 2013년 9월 7일(토요일)/2013년 9월 28일(토요일)
장소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하나투어 본사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빌딩 2층)

KT 먼저 '광대역 LTE-A' 쏜다

이달 서울 시작 10월 수도권 등 단계적 서비스… 기존 LTE폰도 빨라져

KT가 국내 이통사 가운데 가장 먼저 광대역 LTE-A 서비스에 들어간다.

KT는 최근 주파수 할당에서 1.8㎓ 주파수 대역에서 15㎒ 블록을 새로 할당받음에 따라 9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0월 중 수도권(인천광역시 포함)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단 광역시에서는 내년 3월에, 전국 서비스는 내년 7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이용하면 LTE-A 단말기의 다운로드 기준 속도가 최대 150Mbps까지 빨라지며 기존 LTE폰도 100Mbps까지 속도가 올라간다. 특히 주파수가 인접 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간단한 장비 교체만으로 LTE망을 LTE-A망으로 쓸 수 있다.

게다가 2개의 주파수를 묶어 사용하는 경쟁사와 달리 1개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전력 소모가 적어 스마트폰 배터리도 28%가량 오래 쓸 수 있다.

아울러 KT는 광대역 LTE-A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음성 무제한 요금제인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와 '모두다올레 요금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2배 프로모션'의 대상을 모든 LTE 요금제 이용 고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KT는 지난 7월부터 음성 무제한 요금제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2배 늘려주고 멤버십 포인트, 콘텐츠 서비스 등을 최대 2배로 늘려주는 프로모션을 10월 말 기한으로 진행 중이다.

또 광대역 LTE-A 서비스 개시에 맞춰 모바일 IPTV 서비스인 올레TV모바일 서비스를 풀HD급 고화질 서비스와 5.1채널 고음질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고 유무선 IPTV를 이어보기 할 수 있는 콘텐츠도 1만7000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표현명 KT 사장이 2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SKT 하반기 채용 30% 지역인재로

SK텔레콤이 지역 인재 채용을 대폭 확대한다.

SK텔레콤은 전국을 수도권(서울·경기), 중부(충청권), 서부(전라권), 경북, 경남의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지원자 간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B2C·B2B 마케팅 직군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올 하반기 전체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SK텔레콤은 13~14일 경기도 이천 소재 연수원에서 'SK텔레콤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캠프 참가 신청은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SK텔레콤 힐링캠프 전용 홈페이지(www.skt-healingcamp.com)에서 할 수 있다.

/이국현기자 [illegible]

'All-IP 데이터 2배' 광고 화제몰이

인기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PPL처럼 보이는 파격적인 역발상 광고 캠페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 CM전략연구소는 광고 평가인 CM 밸류 광고 선호도(MPR·Mind Rating Point) 조사 결과 7월 집행된 446편의 광고 중 KT의 'All-IP 데이터 2배(2배 나와라 뚝딱)' 편이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 1명의 호감을 얻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되는 광고 효율 평가(CPCM·Cost Per Consumer's Mind)에서도 다른 광고에 비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1위에 올랐다.

'All-IP 2배' 캠페인을 이끈 KT 신훈주 상무는 "이번 All-IP 2배 캠페인은 광고에 사용된 악동뮤지션의 '2배송'을 벨소리나 통화연결음으로 설정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광고를 확산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기획됐다"며 "광고 자체가 매력적인 콘텐츠가 되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바일과 SNS를 통해 광고를 퍼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국현기자

재벌 '주식 숨바꼭질'…비영리 법인에 5조

국내 10대 그룹 소속 비영리 법인이 지닌 계열사 주식자산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 활동을 하는 이들 법인이 지배 구조 지원에서는 계열사 주식을 경영권 강화나 편법 경영권 승계로 악용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그룹이 설립한 19개 비영리 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지분 가치 평가액은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 4조72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의 비영리 법인인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3곳이 보유한 주식지분이 2조72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아산재단과 아산나눔재단이 5495억원이었고, 롯데그룹의 삼동복지재단과 롯데장학재단이 3835억원, 현대차그룹의 정몽구재단이 3592억원 순이었다. 이들 비영리 법인의 자산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6조8335억원 규모로 자산의 약 70%가 계열사 주식인 셈이다.

/[illegible]기자

실버암보험 이젠 80세도 가입되네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대장암·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 받는다.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암(위암·대장암·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뇌암·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무배당 실버암사망특약(갱신형) 가입을 통해 보험 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진아기자 [illegible]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080-951-8585

EMI 취업컨설턴트 모집

운전직 전문 헤드헌팅회사인 EMI(이모든일)가 진취적인 취업컨설턴트를 모집한다.

연령 제한, 학력 제한이 없고 성별도 무관하다. 취업컨설턴트로 채용되면 일반적인 운전 수행 업무 외에도 경호 수행, 비서 수행, 업무용 운전, 사택 기사, 외국계 수행 등의 취업 알선을 담당하게 된다. 문의 02)487-6225

취업준비인구 58만 10년새 2.6배 증가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백수 생활을 감내하는 취업 준비자가 10년 사이에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직된 노동 시장 탓에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도 7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5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0년 전(22만2000명)보다 2.63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혼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15만5000명에서 35만2000명으로 10년 사이 2.46배나 늘어났다. 반면 취업 관련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는 사람은 20만2000명으로 10년 전 20만7000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사람인 관계자는 "취업 준비생이 늘어난 반면 실업자는 32만7000명으로 10년 전(32만8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스펙을 쌓아 더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n@

소설 '온라인 연재' 새 트렌드로

작가 독자층 넓히고 포털 페이지 뷰 늘어 '윈윈'

소설이 IT와 손잡고 있다.

작가와 출판사는 독자층을 넓히고 포털사이트는 페이지 뷰를 늘리는 '윈윈'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베스트셀러 정상에 오른 조정래 작가는 신작 '정글만리'를 출간 전 네이버에 108일간 연재했다. 네이버 연재 당시 이 작품은 1200만 페이지 뷰를 기록해 큰 인기를 모았다.

'정글만리'를 펴낸 해냄출판사는 "이번 온라인 연재는 스마트폰 주 이용자층인 젊은 세대에도 조정래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독자층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SK플래닛은 국내 최초로 전경린 김애란 김선영 박범신 조경란 등 유명 소설가의 신작을 모바일에 연재하는 'T스토어 연재소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작품은 주 1회 무료로 연재되며, 해당 작품은 연재 완료 후 전자책과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소설의 온라인 연재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의 콘텐츠 범위를 다양화하고 종전 작가에게는 스마트 기기 이용 독자와 소통하는 새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명 작가들이 포털에 먼저 무료로 소설을 선보이는 것에 대해 유료 출판 시장을 침체시키고, 문학에 대한 이미지가 가벼워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글만리'는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기준 30만부 이상이 팔리며 무라카미 하루키와 신작을 거뜬히 제쳤다.

이에 대해 조정래 작가는 연재 후기를 통해 "미국에 사는 독자가 '정글만리'를 인터넷으로 공짜로 읽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내 놀라웠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국내 완성차 업계 8월 수출·내수 '씽씽'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달 장사를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8월 한 달간 국내외에서 지난해 동기보다 25.1% 증가한 68만9870대를 팔았다.

내수에선 29.0% 증가한 11만338대를, 수출에선 24.3% 늘어난 57만9532대를 판매했다.

다만 현대·기아자는 지난해 8월의 경우 장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컸던 시기여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 회사의 내수 판매량을 전달과 비교하면 현대차는 19.6%, 기아차는 6.6% 감소했다. 그럼에도 해외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을 만회해 전체 실적에선 현대차(5.0%), 기아차(5.7%) 모두 전달보다 개선됐다. /이국명기자 kn@

비무장지대 품은 '강원도의 힘' 재발견

정전 60주년 기념 미션 체험 행사 '2013 RUN DMZ' 성료… 멸종위기종·민속문화 등 생생한 추억

세계평화공원 조성 기대감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이색 체험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1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강원도 정전 60주년 기념 신개념 미션 체험 행사 '2013 런 DMZ 인 강원(RUN DMZ in Gangwon)'이 그 주인공이다.

강원도와 인제군, 양구군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가족, 친구 등으로 구성된 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강원도 각 지역의 명소를 이동하며 다양하고 재미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K.E.N(대한민국 영어강사 모임) 소속 외국인들도 참여해 강원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했다.

2013 RUN DMZ in Gangwon 행사 참가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행사는 남과 북을 나누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인간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아홉 마리의 동물을 사신으로 임명해 평화와 생명의 끈을 연다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행사는 신흥민속박물관과 박인환문학관, 여초서예관,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등지에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먼저 신흥민속박물관에서 과거 산간지역 촌락에서 실제 사용하던 도구들을 둘러보고, 이 이름을 맞히는 과제를 수행했다.

이후 바로 옆에 위치한 박인환문학관으로 이동해 행사 스태프 4명의 팬터마임을 보고 각각의 글자를 모아 단어 하나를 만드는 과제를 수행했다. 인제 박인환문학관은 과거 박인환 시인이 살던 시대의 골목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곳으로 책방·살롱·다방·술집 등 1940~50년대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여초서예관으로 이동해 여초 김응현 선생의 서체를 감상하고, 하늘의 사신을 찾는다는 콘셉트로 여러 과제를 수행했다. 먼저 까막딱따구리의 알을 보호한다는 주제로 2인 1조의 과제를 수행했고 여초서예관 곳곳에 숨겨진 '홍익인간' 글씨를 찾아다녔으며, 나비를 접어 날리는 등 다양한 과제를 즐겼다.

마지막 장소인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열린 '물의 사신' 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멸종위기 동물인 열목어와 돌상어 모양의 도장을 찾아 DMZ평화생명동산 곳곳을 돌아다녔고, 과제로 받은 암호를 풀어 해당하는 장소에서 수달의 발자국을 찾기도 했다. 또 과제로 받은 사진과 같은 장소를 찾아 같은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K.E.N 소속 외국인이 멸종위기 2급 식물인 '[illegible]'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행사 참가자들의 반응도 대단했다.

단순한 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강원도 곳곳의 명소를 돌아다니며 멸종위기의 동식물에 대해 알고 민속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다.

서울에서 온 한 20대 참가자는 "도시에서 맛보기 힘들었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소재의 과제들이 흥미로웠다"며 "내년에 제2회 대회가 열린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스마트폰 갖다대면 밥솥이 보글보글

근거리무선통신 기능 갖춘 프린터·오디오 등 눈길

프린터, 오디오, 밥솥과 같은 친근한 기기들이 스마트폰의 단짝으로 변신 중이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탑재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쓰임새도 덩달아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프린터다. PC의 주변기기로 여겨졌던 프린터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갖다대기만 하면 출력이 된다. 삼성 스마트 프린터 NFC는 레이저 프린터 업계 최초로 이 기능을 적용, 모바일 프린팅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나 와이파이 설정, PC 연결 등의 준비 과정 없이 스마트폰을 프린터에 갖다 대면 단말기에 있는 이미지, 문서, e메일 등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삼성 모바일 프린팅' 앱을 설치하면 PDF, MS 오피스 문서, SNS 콘텐츠 등을 출력할 수 있으며 복합기에서 스캔한 문서를 바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팩스 전송이 가능하다.

KT가 제주 여행객을 위해 준비한 '올레제주여행'도 눈길을 끈다.

이 앱을 담은 스마트폰으로 제주지역의 관광지에 설치된 NFC 관광 안내판을 터치하면 해당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만 거치면 통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주방가전 업체 쿠쿠는 스마트폰으로 취사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10인용 밥솥 '스마트 NFC'를 선보였다.

스마트폰에 쿠쿠 앱을 내려받은 뒤 밥솥에 가져다대고 앱 메뉴에서 쿠킹, 자가 진단, 기기 음량 및 현재 시간 설정, AS센터 찾기 등을 선택하면 된다.

별도의 버튼 조작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밥솥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앱의 쿠킹 메뉴에는 다양한 종류의 취사 메뉴와 조리법이 내장돼 있다.

조리법에 표기된 준비 재료가 집에 없으면 앱을 통해 간편하게 쇼핑 리스트를 메모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쇼핑 리스트를 전송할 수 있다.

자가 진단 메뉴의 경우 고장이 나면 문제점을 알려주는 '기기 점검'과 세척 주기를 알려주는 '자동세척 실행주기 체크' 기능도 탑재됐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갤럭시NX 카메라가 쏘는 가을선물 삼성전자는 자사의 오프라인 매장인 디지털프라자·딜라이트숍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미러리스 카메라 갤럭시NX를 사는 소비자에게 보호필름과 핸드그립, 카메라 가방 등 사은품을 주는 '폴링 인 폴(Falling in Fall) 페스티벌' 행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e메일 훔쳐본 페북·트위터·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이 고객의 e메일을 훔쳐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사이버 보안업체 '하이테크 브리지'는 50대 주요 IT 대기업의 고객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e메일 전송자와 수신자만 알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이테크 브리지는 개인 e메일에 특정 웹주소를 넣어 조사 대상 IT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고 열흘간 지켜본 결과, 페이스북 등 6개사가 이 링크를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일리아 콜로첸코는 "6개사가 e메일 전송자와 수신자만 알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한 만큼 이 링크가 포함돼 있는 e메일 내용을 읽지 않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전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비밀 정보 수집 행태를 폭로한 뒤 이뤄졌다. /조선미기자

한뿌리 또 한뿌리! 온가족 "심봤다~"

세계가 인정한 건강 명품축제 '금산인삼축제' 6일 개막해 열흘간 활력충전·건강쇼핑 손짓

강인한 에너지로 삶의 활력을 북돋아줄 '금산인삼축제'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인삼의 본고장 충남 금산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금산의 대표 특산물인 인삼과 건강을 결합한 이번 축제에는 건강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함박웃음을 선사해줄 다채로운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지난 2010년 세계축제협회 축제도시 선정에 이어 피나클 어워드 4년 연속 수상 등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형 관광 축제로 자리 잡은 금산인삼축제를 만나보자.

◆축제장 가득한 인삼 향기

축제장 곳곳에는 인삼으로 즐기는 체험거리와 흥이 절로 나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인삼민속촌에서는 전통 저울로 인삼 무게 달아보기, 인삼 말리기, 깎기·찌기, 인삼 씨앗 고르기, 인삼 엿장수, 인삼 재배 과정 체험 등을 마음껏 경험해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누구나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인삼 깎기 체험을 확대해 자신이 직접 깎은 인삼을 건강음료 등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금산백작소'를 운영해 주목된다.

또 추억의 6070 거리에서는 인삼엿장수, 튀밥장수, 인삼달고나 등 추억의 옛 먹거리와 함께 추억 DJ 인삼다방, 인삼교실, 복고댄스, 통기타 공연 등의 볼거리가 어우러져 과거 추억을 웃음으로 되새겨볼 수 있다. 3000ℓ 초대형 인삼병이 개봉되는 인삼주막에서는 퓨전 칵테일쇼를 관람하면서 인삼주를 맛볼 수 있으며, 인삼약초 요리 만들어 먹기 체험 코너에서는 인삼파전, 인삼인절미 등을 직접 만들어 먹어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인삼 캐며 건강까지 챙기기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연 인삼 캐기 체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축제 기간 마음껏 체험이 가능한 인삼 캐기 체험은 인삼밭에 들어가 가족이 함께 인삼을 캐보는 재미와 함께 현지에서 싱싱한 금산 인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전국의 건강 관련 콘텐츠가 총망라된 건강체험관에서는 홍삼 족욕 체험, 홍삼약 마사지, 홍삼 다이어트, 한방 소화제 만들기 등의 다양한 인삼 관련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을 체크해볼 수 있는 전문 건강 체험, 내게의학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벌써 15회를 맞이한 국제인삼교역전에서도 몸에 좋은 홍삼 제품, 인삼 화장품 등 인삼 가공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 알뜰 쇼핑이 가능하며, 참가 업체들의 협찬으로 진행되는 깜짝 경매 이벤트는 인삼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가족 모두 모여 즐기는 인삼축제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축제인 만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금산인삼관에서는 인삼의 재배 과정 및 특이 인삼, 계열체 체험, 인삼 요리법, 효능 및 특징을 배울 수 있고, 3D 영상체험관을 통해 금산과 인삼에 대한 재미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가족이 함께 관람하기에 제격이다. 또 행사장 동선을 따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페이스페인팅과 네일아트 등의 가족문화체험존이 마련되며 뇌파게임, 큐브퍼즐 등 자녀 두뇌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우리아이 두뇌체험존' 등이 새롭게 준비된다.

가족의 소원을 적어 모형등에 부착하는 '효사랑 인삼소원등'을 통해 강처사의 효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전국창작동요대회, 건강댄스경연대회, 전국주부가요제, 전국 통기타포크송 경연, K-팝 커버댄스 경연 등의 전국형 경연이 펼쳐져 축제를 찾는 가족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황재용기자

지난해 금산인삼축제의 인삼캐기 체험에 참가한 관광객들(위).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인삼제품 쇼핑은 금산인삼축제에서 놓칠 수 없는 매력이다.

◆행사정보

- 날짜: 9월 6~15일
- 장소: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 홈페이지: www.insamfestival.co.kr
-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insamfest

가을 부산 '할인의 바다'…지갑열 때마다 '와! 싸다'

2013 Busan Grand Sale

내달 10일까지 쇼핑·관광축제

부산 최대 쇼핑 관광 축제인 '2013 부산그랜드세일'이 다음달 10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올해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아 부산그랜드세일 규모를 지난해 2400여 업체에서 3838개 업체로 대폭 확대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내국인들도 부산 주요 관광지의 호텔·면세점·음식점을 최고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국제시장, 부전인삼시장, 부평깡통시장, 골드테마거리 등 4개 재래시장에서 1900여 개의 점포가 행사에 처음 참여한다. 또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대한프리쇼 등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쇼핑몰 등 24곳도 세일 행사에 동참한다. 특히 지난달 문을 연

재래시장부터 백화점·호텔·음식점 등 최고 70% 세일

신세계사이먼부산프리미엄 아울렛은 이 기간 기존 할인율에 5~10% 추가 할인이 가능한 VIP 쿠폰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웨스틴조선·파라다이스·그랜드·노보텔·롯데·아비스호텔 등 특급 및 1급 상당 호텔 18곳과 5개의 게스트하우스도 통 큰 세일을 진행한다. 해운대 건오·코오롱씨클라우드호텔은 70% 할인율을 적용, 부산국제영화제 기간(10월 4~12일)을 제외하고 평일(월~금요일) 객실을 1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과 농심호텔은 각 60%, 해운대센텀호텔(주중)은 50%, 롯데호텔(주중)과 해운대그랜드호텔은 각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게다가 해운대에서 요트를 타고 광안대교와 누리마루, 오륙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요트관광도 탑승료 10% 할인되며 부산시티투어버스는 탑승료 20%를, 팬스타크루즈와 티파니21은 각각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이제갈비·외식1번가·어마산 등 음식점 15곳도 세일에 참여하고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아쿠아리움 등도 행사에 참여한다.

부산그랜드세일 할인 쿠폰은 김해공항을 비롯해 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 등 관광안내소와 그랜드세일에 참가하는 호텔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www.bto.or.kr)에서도 프린트해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51)780-2177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Musical
BONNIE
&
CLYDE
보니앤클라이드
9월 3일 오후 2시 2차 티켓 오픈!
2013.9.4~10.27 충무아트홀 대극장
이정열 김법래 김민종 엄기준 한지상 Key 박형식 주아 안유진 리사 다나 김형균 박진우 김민수 외
bonnieandclyde.interest.me

강강술래 추석선물세트 인기

작년보다 매출 40% 늘어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지난 3주간 판매 중인 추석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10만원 미만 실속 세트의 인기가 가장 높다고 2일 밝혔다. 불황에다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우 등 축산 선물을 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회사 측은 풀이했다.

강강술래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 지점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4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 6팩 15인분)는 3만9100원, 소용량 세트(350㎖ 6팩 10인분)는 2만2900원, 갈비맛 최고기육포 세트(6봉)는 2만5900원에 판매한다. HACCP인증 시설에서 방부제·색소 조미료 등을 넣지 않은 제품이다.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칭찬한우떡갈비세트'(3박스)는 4만7500원, 흑염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염자한돈너비아니세트'(3박스)는 3만700원에 판매한다.

한편 백세시대와 강강술래는 국가대표 양궁팀과 체조팀, 리듬체조팀, 상무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백두산 생오미자'를 증정하는 행사를 갖고, 9월 한 달간 쇼핑몰에서 오미자 2세트를 사면 1세트를 덤으로 증정한다.

주는건 과일 … 받는 건 상품권

올 추석 희망선물 임장자 관련 지출 평균 19만원대

올 추석 주고 싶은 선물은 비교적 저렴한 '과일', 받고 싶은 선물은 실용적인 '상품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긴 불황으로 서민 10명 중 1명은 추석 선물 구매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가 고객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주고 싶은 선물과 받고 싶은 선물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주고 싶은 선물 1위로는 올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과일(20.1%)이 꼽혔고, 다음으로 건강식품(16.2%), 식용유·통조림(15.7%), 보디용품(8.7%), 한우·갈비(8.6%) 순이었다.

반면 받고 싶은 선물로는 상품권(45.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한우 갈비(11.2%), 과일(8.5%), 건강식품(6.3%), 식용유·통조림(5.5%)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의 11.6%인 142명은 '추석 선물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설 때(3.6%)보다 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선물 구입을 포기한 이유로는 '현금·여행 등으로 대체한다'가 41.5%로 가장 많았고, '경기 악화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도 32.4%에 달했다.

추석 선물 관련 평균 지출 금액은 19만6651원으로 지난해 21만2309원보다 1만5000원가량 줄었다.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불황의 여파로 올 추석에는 줄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과일을, 받을 때는 실용적인 상품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as@metroseoul.co.kr

다섯명 모이면 소한마리 먹기 쉽네

가정 소비 위해 도축할 경우 부대 비용 최대 38만원 지원

앞으로 일반 소비자 5명 이상이 모이면 비싼 한우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게 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농협·한우협회와 공동으로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 대상을 12월 20일까지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가는 물론 일반 소비자 최소 5명이 가정 소비를 목적으로 소 한 마리를 도축할 경우 도축 및 가공, 배송에 따른 부대 비용으로 최대 38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마릿수는 모두 1만2000마리이며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전국 지역 축협과 한우협회 도지회(시·군지부)로 하면 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정운 홍보마케팅팀장은 "이번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은 새로운 소비를 유도해 농가에도 사육 마릿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원기자

고주파 내시경 디스크 시술 '10분의 힘'

강남초이스병원이 추천하는 '디스크 비수술 치료'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하던 가수 휘성은 지난해 급성 제4-5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후 군복무를 강행한 결과 통증이 재발했고 제대 후 다시 병원을 찾았다. 담당 주치의인 강남 초이스 병원 조성래 병원장은 제4요추와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 및 재발로 진단하고 국소마취하에 10여 분간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시행했다.

◆수술이 두렵거나 성인병, 노인 환자도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

최근 이와 같은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이 성행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보다 진화된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척추협착증까지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는 수술이 두렵거나 고혈압·당뇨·골다공증 환자, 노인 등 직접적인 수술이 어려운 환자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국소마취 후 1.5mm 굵기의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집어넣어 직접 환부를 들여다보며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돌출된 디스크 부위에 레이저를 쏴 염증을 제거하는 동시에 신경근 유착을 제거하고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는 시술이다. 내시경으로 작은 병변까지 제거할 수 있고 약물을 집어넣어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고령자나 수술이 힘든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환자 맞춤형 진료를 통한 근본적인 치료

강남 초이스 병원은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 외에도 근본적인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질환, 나이, 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특징이다.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등 4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 환자를 전담하는 통합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강남 초이스 병원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특히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두는 도수 감압 운동 치료를 시행한다. 도수 치료는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척추뼈를 바로잡고 눌린 신경을 풀어줘 압박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통증을 덜어주는 치료다.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감압 치료는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손상되거나 퇴행된 디스크를 정상 디스크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킨다.

조성래 병원장은 "대부분의 디스크 질환은 정확히 진단한 뒤 첨단 치료를 이어가면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 초이스 병원은 서울대입구역에 본원이 있고 홍대입구역에 전문 치료 클리닉 및 척추 관절 비수술 치료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가을 할배들 세가지 복병 피해야 '건강 V'

감기·대상포진·고혈압 등 일교차 큰 환절기 조심해야

아침저녁으로 갑작스레 서늘해진 바람이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 나는 환절기에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환절기 질환은 감기와 대상포진이다. 감기는 대개 1주일 이내에 증세가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면 천식이나 심부전 등 다른 만성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몸에 수포와 함께 피부 발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수포가 발견된다면 우선 대상포진을 의심해봐야 하는데 대상포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포가 증가하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을 동반한다.

감기와 대상포진 모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대상포진은 방치할 경우 2차 감염이나 뇌수막염, 간염 등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감기의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찾는 것이 좋고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이라면 미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 아침저녁 찬바람은 심장에 무리를 줘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온도가 1도 내려가면 수축기 혈압은 1.3mmHg 올라간다. 기온이 5도만 내려가도 혈압은 약 6.5mmHg나 올라가는 것이다.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 좁아진 혈관이 쉽게 터지거나 혈관벽이 손상돼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높인다. 또 고혈압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주요 원인이며 특히 동맥경화증, 뇌졸중, 신부전증 등 치명적이고도 치료가 어려운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노인 혈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55세 이상에서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약을 지보로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항림 서울시 북부병원 내과 과장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부천성모병원 6일 '난청 치료' 주제 건강강좌

●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이 '귀의 날'(9월 9일)을 맞아 '난청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6일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유니버스홀에서 공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비인후과 서재현 교수와 류일상 청각사가 ▲노화성 난청 ▲음향기기에 의한 소음성 난청과 예방법 ▲나에게 맞는 보청기 찾는 요령 등을 설명한다. 무료 청력검사, 신형 보청기 체험, 보청기 무료 점검 서비스 등도 진행된다.

아주대병원 7일 '제1회 당뇨발·창상 심포지엄'

● 아주대병원이 7일 '제1회 아주 당뇨발 및 창상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늘어나는 당뇨병 환자 관리와 당뇨발 이라 불리는 당뇨병 합병증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대병원 당뇨발클리닉 개설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내 전문 의료인들이 당뇨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대병원 '건강한 위·대장 축제'

내일 환우, 의료진 공동 행사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위암 대장암협진센터가 개소 3주년을 맞아 환우들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4일 진행한다.

이대목동병원 3층 이화쉼터에서 열리는 '오색 야채 건강 비빔밥 만들기'를 시작으로 아나바다 장터, 자개 공예품 전시회 등이 진행된다.

또 '위·대장 건강관리'를 주제로 심기남 정성애 소화기내과 교수의 건강 강좌와 레크리에이션 된시도 열리며 오후 4시에는 이대목동병원 위암 환우회인 '위너스'의 발족식이 개최된다.

김광호 위·대장센터/위암 대장암협진센터장은 "이번 행사에 환자와 지역 주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알찬 건강 정보도 얻고 즐거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대 의료진들이 펴낸 '여자 40세부터 건강하게 잘먹고 잘사는 법' 등의 건강 도서와 다양한 기념품, 추첨을 통한 내시경 검진권 등의 경품이 주어진다.

/황재용기자

star bag

임신 6개월 쌍둥이 엄마 된다

혼성 그룹 투투 출신의 자선사업가 황혜영이 엄마가 된다.

황혜영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이 측은 2일 "황혜영씨가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임신했다"며 "쌍둥이를 임신한 지 6개월째며 현재 태교에 전념 중"이라고 밝혔다.

황혜영은 2011년 10월 민주당 김경록 부대변인과 결혼해 화제가 됐다.

'권법' 촬영 지연 탓 출연 포기

배우 조인성이 제대 후 복귀작으로 선택했던 영화 '권법'에서 결국 하차했다.

2일 투자·배급사 CJ E&M 관계자에 따르면 '권법'의 촬영이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조인성의 일정과 조율하기 어려워서 끝내 출연이 무산됐다. 이 영화는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SF물이다.

제작이 지연되면서 조인성은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로 먼저 복귀했다.

새 음반 해외뮤지션 지원사격

월드스타 싸이가 유명 해외 뮤지션의 지원사격을 받아 새 음반을 제작한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일 지드래곤의 월드투어 '원 오브 어 카인드' 피날레 공연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싸이의 새 음반에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뮤지션이 대거 참여했다"고 밝혔다.

'우결4' 새 커플 물망 올라

가수 정준영(왼쪽)과 배우 정유미(오른쪽)가 MBC '우리 결혼했어요 4' 새 커플로 물망에 올랐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제작진에게 가상부부 출연을 제의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정치·정인, 정진운·고준희 커플이 하차한 바 있다. 한편 나란히 물망에 오른 배우 윤진이의 출연은 불발됐다.

카라 멤버 지영·니콜·규리·승연·하라(왼쪽부터)가 2일 광장동 유니클로 악스홀에서 4집 '풀 블룸'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5인 5색의 매력을 선사했다.

"깊어진 음악에 중성미 더했죠"

프렌치 팝+록 사운드 절묘한 조화
공감가는 시원한 가사에 똑 질걸요
한승연 "밥솥 2개 비워… 숙녀 못돼"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 카라(규리·하라·승연·니콜·지영)가 데뷔 7년째를 맞아 발표한 새 정규앨범에 만개한 음악성을 담았다. 2일 출시한 4집 '풀 블룸'은 멤버들의 아이디어로 가득 찼으며, 1년여의 공백기를 보내는 동안 달라진 음악적 변화와 성숙을 엿볼 수 있는 앨범이다. 멤버들은 이날 광장동 유니클로 악스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새로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 악물고 연습…보컬도 변화

그동안 다양한 퍼포먼스와 포인트 안무, 귀여운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어왔던 카라는 이번 앨범에서 음악적 도전에 역점을 뒀다. 타이틀곡 '숙녀가 못 돼'는 프렌치 팝에 강렬한 록 사운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곡이다. '프리티걸' '허니' '미스터' 등 카라의 대표곡들을 써온 스윗튠(한재호·김승수·이정현)의 곡이지만 기존 카라 스타일에서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준다.

"첫 녹음에서 만족하지 못해 다시 요청해 녹음을 완전히 다시 하기도 했다"고 밝힌 한승연은 바뀐 곡 스타일에 맞춰 보컬에도 변화를 주는 등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지난달 21일 선공개한 '둘 중에 하나'도 카라가 처음으로 시도한 블루스 장르의 미디엄 템포 곡이다. 어쿠스틱한 반주 위로 이별을 앞둔 여자의 감정을 부드럽게 녹여냈다.

이외에 연인의 감정을 달달하게 풀어낸 '1+1', 세련된 어번 팝 장르의 '팝로우 미', 펑키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두나잇' 등 9개 수록곡 모두 한층 깊어진 카라의 음악성을 느끼게 한다.

"오랜만의 앨범인 만큼 각오를 다지고 나왔어요. 처음 시도하는 장르를 소화하기 위해 노래 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음악 실력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오랜 기간 준비해 발표한 앨범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남성풍 콘셉트 '매니시룩' 선봬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포인트 안무와 특별한 무대 콘셉트로 화제를 모아온 이들은 이번 앨범에서 '매니시 룩'을 전면에 내세운다.

"지영이가 성인이 돼 좀 더 섹시하게 가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색다른 모습을 찾아보다가 남성풍의 콘셉트에 도전하게 됐어요. '숙녀가 못 돼'라는 노래와도 잘 어울리고요."

멤버들은 '강남스타일' '젠틀맨' 등을 연출한 조수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뮤직비디오에서 슈트와 넥타이 등의 소재를 사용해 중성적인 느낌의 섹시한 매력을 뽐어낸다.

강지영과 한승연은 노래 제목과 같이 숙녀답지 않은 내면을 깜짝 공개했다. 강지영은 "운동을 할 때는 창피해서 선생님 외에는 아무도 못 보게 한다.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 온갖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라며 괴성을 지어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한승연은 "숙녀라고 하면 조신하고 자제해야 하는데 나는 배가 고프면 그러지 못한다. 이것저것 먹어대고 특히 화가 나면 잘 먹는다. 밥솥을 2개나 비워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가사에 크게 공감했다는 박규리는 "'가다 확 넘어져라'라고 커플에게 짜증 내는 부분이 있는데 속이 시원했다. 평소에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가사를 통해 풀어놓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미니 팬미팅 형식의 쇼케이스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뮤직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이달 중순 MTV를 통해 싱가포르·홍콩·중국·일본 등에 방영된다.

/유순호기자

디자인/김재왕 사진/DSP미디어 제공

정규 2집 타이틀곡이 무려 4곡 '이색' – 앨범 공개시기도 온·오프라인 달라

GD 음반 '파격의 연속'

세계적 해외 뮤지션 대거 참여

빅뱅의 지드래곤이 파격적인 음반 마케팅과 함께 4년 만의 정규앨범을 공개했다.

지드래곤은 2일 오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공식 블로그에 정규 2집 트랙리스트와 출시 일정을 발표하고 컴백을 알렸다. 총 14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에서 4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우는 이색 전략을 펼친다.

또 앨범을 두 시기로 나눠 온라인에 공개하고 최종적으로 오프라인에 출시하는 계획도 새롭다. 더블 타이틀곡인 '블랙'과 '니가 뭔데'를 포함한 1~5번 트랙을 2일 공개했다. 5일에는 또 다른 타이틀곡인 '삐딱하게'와 '늴리리야'를 포함한 6~12번 트랙 총 7곡을 공개한다. 13일에는 '윈도우'와 '블랙'의 다른 버전을 추가한 총 14곡이 수록된 정규 음반을 발표한다.

이번 앨범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적인 해외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파트1에는 이미 알려진 대로 힙합계의 대모라 불리는 미시 엘리엇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늴리리야'를 비롯해, 디플로와 올해 유튜브를 강타한 '할렘셰이크'의 바우어가 참여한 '쿠데타'가 수록됐다.

파트2에는 독일의 유명 DJ인 보이즈노이즈가 참여한 '너무 좋아'가 수록되며, 음반에는 타이틀곡 '블랙'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스카이 페레이라가 피처링한 버전이 실린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발표한 미니앨범 '원 오브 어 카인드'에서 세련된 힙합 비트와 독특한 가사를 선보인 바 있어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인다. 1일 첫 솔로 월드투어 마지막 공연을 마친 그는 본격적으로 2집 활동에 들어간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손석희 14년만에 앵커 복귀

JTBC 메인뉴스 단독진행

손석희(사진) JTBC 보도담당 사장이 메인 뉴스의 앵커로 나선다.

JTBC는 2일 "16일부터 대대적인 시사·보도 프로그램 개편을 실시한다"면서 "손 사장이 '뉴스9'의 단독 진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손 사장이 뉴스 앵커로 나선 건 1999년 MBC '아침뉴스 2000' 이후 14년 만이다. 그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리포트의 백화점식 나열을 자제하고 탐사보나 전문가와의 인터뷰, 심층 취재 등을 통해 '한 걸음 더 들어간 뉴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오병상 JTBC 보도국장은 손 사장이 직접 앵커로 나선데 대해 "효율적인 뉴스 프로그램 개편과 혁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뉴스에는 과거 MBC 표준FM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0여 년간 함께 일했던 작가들이 합류하는 등 손 사장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데 역점을 뒀다.

/박선영기자 tak0427@

왕가네 ' 시청률 20% 돌파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이 방영 2회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일 방송된 2회분이 전국 기준으로 전회보다 4.1%포인트 오른 시청률 23.8%를 기록했다.

3대가 함께 생활하는 왕씨 가족을 중심으로 부부 간의 갈등, 부모의 편애에 대한 자식들의 갈등을 그린 이 드라마는 이날 자식을 편애하는 이앙금(김해숙) 등 다양한 인물들의 면면을 소개했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개성 강한 캐릭터, 연기자들의 호연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박선영기자

김해숙 "내 머리속엔 유·아·인 세 글자"

최고의 남자 파트너 꼽아

배우 김해숙(사진 왼쪽)이 임달화와 원빈을 제치고 유아인(오른쪽)을 최고의 남성 파트너로 꼽았다.

김해숙은 2일 열린 영화 '깡철이' 제작보고회에서 모자지간으로 호흡을 맞춘 유아인에 대해 "굉장히 남자답다. 이제껏 보여주지 않았던 남성스러운 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둑들에서 별로 연기를 함께했던 홍콩 스타 임달화와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그 사람 누구죠? 제 머릿속에는 유아인 세 글자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유아인이 상대역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심봤다를 외쳤다. 패션잡지에서 보고 드라마를 보며 팬이 됐다"며 "유아인을 굉장히 좋아해 언제 작업하나 싶었는데 이번 작품에 상대역이라고 들어서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했다. 복이 넘쳐 들어왔다"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탁순호기자 suno@

※ 원작「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2일 열린 뮤지컬 '위키드' 제작발표회에서 조상웅·김보경·정선아·옥주현·박혜나·이지훈(왼쪽부터) 등 출연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설앤컴퍼니 제공

'녹색마녀' 옥주현 "대작 부담감 있다"

뮤지컬 '위키드' 제작발표회

지난해 내한 공연 당시 큰 히트를 기록한 뮤지컬 '위키드'가 옥주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한국어 버전 공연을 펼친다.

2003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25억 달러(약 3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3600만 명을 동원한 히트작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내한 공연은 260억원의 매출, 23만5000명의 관객 동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국내 상연 뮤지컬 사상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이 작품은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소설 '위키드'를 사악한 서쪽 마녀의 삶과 시간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쁜 마녀로 그려지는 녹색 피부의 엘파바를 의협심 있는 인물로, 착한 마녀 글린다를 욕심 많은 인물로 캐릭터를 비틀어 표현했었다.

제작사 설앤컴퍼니는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 제작발표회에서 한국어 버전 공연의 캐스팅을 공개했다. 옥주현이 박혜나와 함께 주인공 엘파바를 번갈아 맡고, 정선아와 김보경이 엘파바 친구인 글린다를 연기한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옥주현은 "오리지널 프로덕션 제작진이 심사한 오디션에 참여할 당시 몸이 아파서 작품과 연이 없나 보다 라고 낙담했으나 발탁됐다"면서 "기대가 많은 대작이라 부담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애착을 드러냈다.

이 밖에 이지훈·조상웅·남경주·이상준·김영주·조광근·김동현·이예은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11월 22일 샤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한다. 문의 1577-3363

/박지원기자 bak0427@metroseoul.co.kr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트레일러 연출 맡은 조재현

배우 조재현(사진)이 제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트레일러를 연출했다.

영화제사무국은 2일 "이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현이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을 위한 영화제로의 초대'를 콘셉트로 트레일러를 직접 기획해 연출했다"고 밝혔다.

트레일러는 1분 안팎의 짧은 영상물로, 영화제를 대표해 초청작 상영 전에 선보여진다.

조재현이 연출에 참여한 건 가수 임재범의 뮤직비디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에 이어 두 번째다.

영화제는 다음달 17~23일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열린다.

/박지원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Can you give me directions to the Peace Park? 생활 정보 묻고 답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Excuse me. 피스 파크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B Of course. 그곳은 여기서 많이 멀지 않아요.
A Oh, really?
B Don't worry. It's easy. 이 길로 두 블록 간 다음, 오른쪽으로 도세요.
A. Is it on that side of the street?
B. No, the Park is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정답 Can you give me directions to the Peace Park? / It's not very far from here. / Go 2 blocks on this street then turn right.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생생영어팁

▶ You want to make a left at the traffic light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하세요.

이 말은 길을 가르쳐 주는 문장입니다. 직역해보면 '당신은 신호등에서 왼쪽으로 돌고 싶어한다'가 되어 어색하게 들리지만 want to가 여기서는 ~하셔야 합니다 라는 부드럽게 지시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냥 Make a left(= Turn left / Make a left turn)라고 하는 것보다는 You want to로 시작하면 훨씬 부드럽게 들리니 이 표현을 알아두면 유용할 거에요.

ex. A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B Do you see the grey building over there? You want to make a right at that building, then to walk straight for about a block.

대명사 1

▶ 인칭대명사의 분류

	주격	소유격	목적격
1인칭	I 나는 we 우리는	my 나의 our 우리의	me 나를 us 우리를
2인칭	you 너는 you 너희들은	your 너의 your 너희들의	you 너를 you 너희들을
3인칭	he/she/it 그/그녀/그것은 they 그들은	his/her/its 그/그녀/그것의 their 그들의	him/her/it 그/그녀/그것을 them 그들을

▶ 예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읽어보세요.

1.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이에요.
2. This is his house. 이것이 그의 집이에요.
3. Owen knows them. 오웬은 그들을 알아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East Abbey City is run _______ a mayor and a seven-member council who are elected for four years.
(A) of (B) among
(C) by (D) from

02 _______ about the actual cost of the project have delayed the plans for expanding the arena.
(A) Additions (B) Manners
(C) Materials (D) Concerns

01. 이스트 애비 시는 4년 임기로 선출되는 시장과 6인의 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해설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 (C) by를 써야 한다.
어휘 run 운영하다 mayor 시장 council 의회 elect 선출하다
정답 (C) by

02. 프로젝트의 실제 비용에 대한 우려로 경기장 확장 계획이 지연됐다.
해설 '거금에 대한 염려' 라는 의미가 적합하므로 (D) Concerns를 쓴다.
어휘 actual 실제의, 사실상의 delay 지연시키다 expand 확장하다 arena 경기장 addition 추가
정답 (D) Concerns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 하기

1.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실내

This is a picture of a(n) 이것은 ~의 사진입니다	airport 공항 meeting room 회의실 hair salon 미용실	laboratory 실험실 warehouse 창고 cafeteria 구내식당

야외

This is a picture of a(n) 이것은 ~의 사진입니다	bench 벤치 outdoor market 야외 시장 pier / dock 부두	lake 호수 street 거리 park 공원

2. 인물의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

A man 남자가	has gray hair 흰머리이다 has a mustache 콧수염이 있다	has long hair 머리가 길다 has a beard 턱수염이 있다
A woman 여자가	has blond hair 금발 머리이다 has pigtails 땋은머리이다	has curly hair 곱슬머리이다 has a ponytail 머리를 묶은 머리이다

날씨

9/3 火 일출 06:04 일몰 18:5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환절기에는 감기로 비롯한 상기도 감염의 발생이 증가한다다. 하루 30분 이상의 적절한 운동과 6시간 이상의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몸의 면역력을 키우세요.

감기 가능 지수	[illegible]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illegible]
뇌졸중가능지수	[illegible]
피부질환가능지수	[illegible]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요즘 '왕도'는 만들어진다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왕도'란 '바람이 거쳐야 할 과정'이다. 손에 쥐고 싶은 성적표를 기대한다면 당연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말이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어떤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게 필수라는 의미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무슨 일이든 꾸준한 태도를 갖는 게 성과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가르침이다.

최강록씨는 얼마 전 끝난 '마스터셰프 코리아 2'의 우승자다. 경연장에서 조리를 하는 동안 어디서 요리를 배웠느냐는 심사위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물쭈물했고, 심사위원은 의문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의 대답은 '만화책을 보고 배웠다'였으며 세 명의 심사위원은 아연실색했다. '감히 네가 요리를 하라고 생각하기에'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젊은 디자이너 이연종, 이하림, 박지성은 이태원 한쪽에 '웍스(Works)'라는 가게를 운영 중이다. 한국에서 디자이너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출발점을 달리했다. 자신들이 디자인한 상품은 물론 독립창작가들의 제품도 가게에 진열해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유통판매업을 해본 적도, 정식으로 경영 수업을 받은 적도 없다. 단지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댔을 뿐이다.

왕도가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의 왕도는 기성 세대, 이해관계자, 혹은 조정자의 이익을 위한 장치로 치부됐다. 물론 지금처럼 정보의 수집과 이해, 활용의 수준이 미미했던 산업사회와 지식사회에서는 유용했던 기준이다. 앞으로 얼마 동안은 이 사회의 많은 부분이 이런 왕도에 의해 지켜질 것도 자명하다. 다만 새로운 왕도를 만드는 세대들의 행진에 길을 내줄 수밖에 없고, 기꺼이 그리해야 할 때라는 건 인정하자.

10대, 20대, 30대 할 것 없이 하고 싶은 일의 지름길을 찾아내는 건 기본 소양에 불과하다. 세대 자체의 DNA며,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끌어갈 왕도를 이제까지와 다르게 만들어낸 수 있다. 가르쳐야 할 세대가 아니라 응원해야 할 세대다. 그들은 모두 천재다.

/인디라이프스타일(www.lfy.co.kr) 대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8	
						5	7	
4	2	8		9			6	
			5			1		
5				1				4
		1			3			
	4			2		9	5	8
	6	7						
	5							7

	6						4	5
8			3					
		4	5	9			3	
	4				8			6
2								4
1			6				8	
	9			5	1	2		
					2			3
6	1						7	

스도쿠 정답

[illegible]

문제제공 = 보누스
한사 스도쿠 플래티넘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중학생 딸 폭력적으로 바뀌어 힘들더라도 공부 포기 말아야

zkypemshd 여자 99년 음력 6월 30일 오전 9시

Q 올해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폭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인지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공부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남들에게는 주눅이 들어있어서인지 저에게만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대인 관계가 악화되거나 성적이 부진할 때 상황을 개선시키려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가슴이 아픕니다. 따님은 고독하고 생길지가 쪽에서 들어있는데 부모궁에 원진살이 끼어있어 분노가 폭발하고 인생의 주변부에서 겉돌기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2017년까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사주 뿌리에 인색(印比)이 나를 생해주고 동궁의 오행(기가 힘을 발휘하고 본인을 돕고 있으니 서책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살다면 천천성(天針星)이 있으니 검도를 배워 자신을 일시적으로라도 방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동업하는 회사 접어야 할 상황 희망 버리지 말고 신용 얻어야

하노제이 남자 70년 12월 2일 음력 오전 2시12분

Q 3년 전 오랫동안 근무했던 건축설계 사무실을 떠나 유사한 직종으로 옮겼는데 월급도 못 받고 1년을 버텼습니다. 친분이 있는 2명과 지난해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도 여의치 않아 접어야 될 지경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가정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출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기운으로 그곳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기운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한 안에 통결하면 자연스레 상쾌함을 느끼는 법이고 그것은 가족이나 직원들의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현관이 지저분하거나 대문 입구에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곳은 볼 것도 없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간단합니다. 신용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심사일언(三思一言)하세요. 힘들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려는 자세가 정말 훌륭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3일 (음 7월 28일) 김학수 인생상담 [illegible]

쥐 48년생 귀중품 잃지 않도록 조심. 60년생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린 일이 웃음 준다. 72년생 급하다고 아무렇게 쓰면 후회. 84년생 독설은 가슴 멍들게 한다.

소 49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61년생 인사 문제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73년생 작은 성과에 오버하면 얕볼 위험 있다. 85년생 잠수에 편히 말고 길게 보고 기다려라.

호랑이 50년생 금융 투자는 다시 생각하라. 62년생 당당한 일상에 새 바람이 분다. 74년생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다음을 생각하라. 86년생 야당의 지지하니 환영받는다.

토끼 51년생 멀리서 반가운 벗이 찾아온다. 63년생 배우자의 따뜻한 대접에 감동. 75년생 욕심낼 일 생겨 의욕이 넘친다. 87년생 토라진 애인에게 먼저 손 내밀어라.

용 52년생 펀에는 올라가나 구설수 조심. 64년생 스케줄에 갑자기 변수 생긴다. 76년생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체크할 것. 88년생 최선 다하면 꿈은 현실화된다.

뱀 53년생 조정할 땐 순조롭게 해결된다. 65년생 작은 성과에 흥분하지 마라. 77년생 일은 잘 풀리지만 문제도 많다. 89년생 말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말 42년생 대접받으려면 목소리 낮춰라. 54년생 재정 안정 수입 늘어난다. 66년생 이기저기 오라는 곳 많아 즐거운 비명. 78년생 웃을 일이 생겨 근심도 사라진다.

양 43년생 오전과 오후 희비 엇갈린다. 55년생 오해 사지 않도록 행동 조심할 것. 67년생 팔라한 상황에서 생길 건 다 챙긴다. 79년생 수변의 충고에 귀 기울여라.

원숭이 44년생 깊게 생각하다 심신이 기쁜. 56년생 권한이 좋아질 일이 생긴다. 68년생 변수가 있어도 계획대로 하라. 80년생 직장 생활이 즐거우니 만사가 유쾌하다.

닭 45년생 공정심 잃으면 재면만 손상된다. 57년생 최종 판 갑작스러운 사고 조심해라. 69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인심만 잃는다. 81년생 술자리는 짧게 끝내라.

개 46년생 지금은 어려워도 정도 지켜라. 58년생 겉으론 남지만 실속은 손해다. 70년생 직장 동료와의 화합에 힘쓰도록. 82년생 최선을 다하면 도우미가 모여든다.

돼지 47년생 환자는 병세 호전된다. 59년생 궁금한 살림에 보물선이 들어온다. 71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83년생 청관이 쌓이지만 몸 더 낮춰라.

추신수 “아! 사이클링히트”

콜로라도전 5타수 3안타 · 18호 홈런·17호 도루

추신수(31 신시내티 레즈)가 시즌 18호 홈런을 쏘아올리며 3년 만에 20-20 클럽 가입을 눈앞에 뒀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투런 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전날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4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한 추신수는 이틀 연속 3안타를 때리는 물오른 타격감을 보였다. 지난달 28일 개인 통산 100번째 홈런을 친 이후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고 시즌 타율은 0.281에서 0.284로 올랐다.

추신수가 2일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1회 안타로 출루한 뒤 2루 도루를 시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그는 이날 17호 도루도 성공해 2010년 이후 3년 만의 20홈런-20도루 달성에 각각 홈런 2개, 도루 3개만을 남겨뒀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곧바로 2루를 훔쳤다. 3회 무사 1루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포를 날렸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때려냈다.

3루타만 추가하면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하는 상황이었지만 6회와 8회에는 각각 3루수 플라이와 삼진으로 물러났다. 신시내티는 콜로라도에 4-7로 졌다.

한편 1997년부터 콜로라도에서만 뛴 베테랑 타자 토드 헬턴은 7회말 때린 2루타로 개인 통산 2500안타 고지를 밟았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메시 “봤지 해트트릭” 바르셀로나의 메시(오른쪽)가 1일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상대팀 골키퍼 디에고 알베스를 제치고 슛을 시도하고 있다. /AP 뉴시스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염경엽 감독 ‘위기극복의 리더십’

염경엽 넥센 히어로즈 감독은 7월을 앞두고 앞이 캄캄했다. 개막 초반 스마트 야구와 단단한 팀워크로 선두권을 달렸다. 3연패를 노리는 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팀이었다. 그러나 야구는 투수가 없으면 무너진다. 브랜든 나이트-앤디 밴 헤켄 등 선발투수들이 부진에 빠지며 마운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승승장구하던 초보 감독에게도 위기가 왔다. 6월은 9연패 포함 8승1무13패. 고민을 하다 보니 하루에 두 시간도 자지 못했다. 체중은 57kg까지 떨어졌다. 야구를 한 이후 가장 적은 체중이라고 한다. 지난겨울 선수들의 단내 나는 땀을 기억하는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잠않없이 답을 찾으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김성근 고양 원더스 감독을 찾아갔다.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감독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 한 달 뒤를 준비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머리 좋은 염 감독은 곧바로 의미를 알았다. 벌어놓은 승수가 있으니 선발투수들을 한 달 동안 준비하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두 명의 선발투수들을 준비했다. 문성현과 오재영이었다. 문성현은 4월 중순 이후 1군에 없었다.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선발투수로 나서 6경기에서 5승을 따냈다. 오재영은 2경기에서 1승 9.1이닝 3자책점을 기록했다.

넥센은 8월을 버텨냈다. 9월 1일까지 12승11패1무로 버텼다. 두 투수가 없었다면 무너졌을 것이다. 넥센은 롯데 자이언츠에 3.5경기 차로 앞서있나. 남은 경기에서 빈타작만 하면 4강이 확실시된다. 한 달의 준비를 통해 무너지지 않는 힘을 키웠고 위기의 넥센을 구한 것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R마드리드 이적 베일 ‘1억 유로의 사나이’

올여름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최대어인 가레스 베일(24·사진)이 역대 최고 이적료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6년 계약으로 베일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적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8600만 파운드(약 1477억원)로 알려졌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00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당시의 8000만 파운드(약 1400억원)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이다. 또 최초로 1억 유로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더욱 화제를 모은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 같은 거액을 쏟아부은 결과 좌날두-우베일의 막강 공격라인을 완성했다.

라이벌 FC바르셀로나의 '남미 콤비'인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다 실바는 1일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경기장에서 열린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환상 호흡을 맞추며 3-2 승리를 이끌었다. 허벅지 부상을 딛고 돌아온 메시는 시즌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모두 올 시즌 3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유순호기자